

Isochem, Phosgene으로 재도약

GP 비료공장 폭파로 2001년 폐쇄 ... 매출신장 목표로 재건설 신청

SNPE의 정밀화학 사업부인 Isochem은 프랑스 정부에 Vert-Le-Petit 콤플렉스에 Phosgene Generator를 재 건설할 계획이다.

Isochem은 이미 프랑스 정부가 건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Grande Paroisse(GP)의 비료공장 폭발사고로 이후 정부로부터 프랑스 Toulouse 소재 Phosgene 플랜트 폐쇄요청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01년 말부터 부족한 Phosgene을 외부에서 구입해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Isochem에 따르면, Phosgenation은 핵심기술 가운데 하나로 Phosgene Generator는 의약품 중간제품용 Phosgene을 약 1000톤 생산하게 될 예정이다

현재 Isochem은 Rhodia로부터 Phosgene을 공급받아 Pont-De-Claix에서 Agchem 중간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Vert-Le-Petit에서는 체코 생산기업의 Phosgene을 원료로 사용해 의약품 중간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연평균 총 4만톤 가량의 Phosgene을 소비하고 있으며 헝가리 Kazincbarcika에 의약품 중간제품 1만톤 플랜트를 비롯해 뉴욕주 Lockport에 8000톤 및 중국 Shanghai에 Huai와의 1만2000톤 합작 플랜트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Isochem은 프랑스 정부의 승인을 획득한 후에도 Phosgene을 계속 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Isochem은 세계 10대 정밀화학 생산기업을 목표로 앞으로 4년 안에 매출을 2억5000만유로(2억9000만달러)로 100% 끌어올릴 계획이다. Isochem은 현재 세계 1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EBITDA(Earning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 Amortization)도 20%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Isochem은 의약품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초기가공 단계에 속하는 Peptide 매출은 두 자릿수의 신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3단계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분자물질 사업의 성장 잠재력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상업화되면 1억유로의 추가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신제품 등록이 지연되는 등 의약품 중간제품 시장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Isochem은 2004년까지 전체 코스트의 80%에 달하는 약 1200만유로의 코스트를 절감하고 2005년까지 나머지 20%의 코스트를 절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체 인력 1300명 가운데 약 120명이 감원될 전망이다. 2003년 상반기 플랜트 가동률이 70-75%대로 하락했으며 하반기에는 40%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Isochem은 R&D 부문에 있어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2004년에는 Lockport에 실험실 및 Pilot 플랜트를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Isochem은 Toulouse 소재 Phosgene 플랜트는 Hydrazine 기술 전용 플랜트로 개조했으며 보험금 1억 2000만유로와 함께 프랑스 정부로부터 Toulouse 플랜트 폐쇄에 따른 보상금 3억5000만유로를 지급받았다. 또한 GP의 모회사 Total과 보상금 지불에 대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4/02/05>